

전세계 지도자 탈세·불법 ‘판도라 상자’ 열렸다

ICIJ, 정치인·억만장자 등 수백명 연루 ‘판도라 페이퍼스’ 보고서 공개 요르단 국왕·블레이 前총리·팝스타 샤키라 등...“이수만 관련 자료도”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억만장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세 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불법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판도라 페이퍼스’가 3일(현지시간)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유사한 내용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 당시 이름이 오른 이들 일부가 사임과 수사에 직면하는 등 국제적으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지 5년 만에 다시 세계 지도자들의 위법과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의 비영리 독립언론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자료에 ‘케이팝 대부’ 이수만 씨의 홍콩 페이퍼컴퍼니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하는 등 한국인과 관련된 내용의 폭로를 예고했다.

14개 기업에게서 입수한 약 1천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한 결과 수백 명의 지도자와 힘 있는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등이 지난 25년간 저택과 해변 전용 부동산, 요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해 ‘몰래 투자’를 해왔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ICIJ는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117개국 159개 미디어에서 60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가 엘리트와 부패인사들의 숨겨진 거래와 그들이 어떻게 역외 계좌를 활용해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호했는지를 밝혔기에 판도라 페이퍼스로 불린다고 AP는 전했다.

전 영국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에라도르 대통령 등 전·현직 국가수반 3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부패, 돈세탁, 글로벌 조세회피 등 여러 의혹에 직면해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의 측근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푸틴이 내연녀 등 측근을 통해 모나코 내 비밀자산과 연결됐다고 전했다.

억만장자로는 터키의 건설업계 거물 에르만 일라카와 소프트웨어사 레이놀즈 앤드 레이놀즈 전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브로크만 등이 들어 있다. 이들은 역외 계좌, 비밀 재단, 페이퍼컴퍼니 등에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 일부를 은닉하는 형태로 큰돈을 관리하고 세금 포탈 등 혜택을 누렸다. 이들 소유의 상당수 계좌는 자산 은닉이나 탈세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는다.

서에 나온 자국민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파네라 칠레 대통령은 광산 매각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일부 러시아 국영 언론은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 이름을 뺐다고 WP는 전했다.

판도라 페이퍼스는 1970년대 것도 있지만 대부분 1996~2020년 내용이다. ICIJ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인도양 섬나라 세이셸, 홍콩, 중미의 벨리즈 등 익숙한 역외 피난처에 등록된 계좌를 파헤쳤다. 사우스다코타주 81개, 플로리다주 37개 등 미국에서 설립된 신탁사에도 일부 비밀 계좌가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블레이 전 총리는 880만 달러짜리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을 보유한 버진아일랜드 업체를 인수해 2017년 건물주가 됐다. 블레이 부부는 바레인의 산업관광부 장관 부부로부터 그 업체를 사들이면서 4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했다. 세리는 남편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바레인 장관 측은 영국법을 준수했다고 각각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

기름유출 송유관 폐쇄

유출량 57만 l ...“재앙적 상황”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현장 주변 송유관이 폐쇄됐다.

미국 석유회사 ‘엠펙스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틴 윌셔는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남부 바다로 기름이 더는 유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P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현팅턴비치가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덮여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로 해변이 오염된 것은 물론 새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환경 재난이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그것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이 전체 송유관의 용량이다”며 엠펙스에너지가 근처에 가동하던 송유관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잠수사들이 기름 유출의 발생 지점과 원인을 파악하려고 계속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유관은 이번 기름 유출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카운티의 행정책임자인 카트리나 폴리 감독관은 트위터에서 ‘엘리’라는 석유 굴착장치와 연결된 송유관의 파열 지점에서 기름이 새고 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해상에서는 지난 1일 오후나 2일 오전부터 약 57만2807 l 나 되는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지역 당국이 추정했다. 유출된 기름피는 인기 해변인 헌팅턴비치에서 남쪽 뉴포트비치까지 10km 넘게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변에는 끈적하고 검은 기름과 새, 물고기 등 동물 사체들이 떠밀려왔으며 기름으로 인한 악취가 곳곳으로 확산했다.

헌팅턴비치의 김 카 시장은 이번 사고로 내려진 해변들의 폐쇄 조치가 수주나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름 유출은 지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겪은 가장 재앙적 상황 중 하나”라며 특히 생태계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기시다 새 총리 첫 시험대...일본 총선 이달 31일 치른다

예상보다 1~2주 앞당기기로

일본 유권자가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국회 하원) 선거(총선)가 오는 31일 치러진다.

4일 NHK,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총재는 오는 19일 고시(후보등록) 후 12일 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일요일인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총선 일정을 잡았다. 일본에서는 통상 일요일에 국경·지방 선거의 투·개표를 한다.

오는 21일 4년 임기가 만료되는 현 중의원은 이날 새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회기를 시작했다. 기시다는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는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시다는 오는 14일 중의원 해산 후 내달 7일이나 14일에 총선 투·개표를 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 일정을 1~2주일 앞당기는 셈이 됐다. 기시다가 총선을 서두르는 데는 취임 초기의 이른바 ‘축하장세(場勢)’를 활용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 내각이 발족하면 초기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축하장세라고 부른다.

이날 제100대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에게는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가 정치 운명을 좌우하는 첫 고비가 된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승리할 경우 기시다는 특별국회의 재지명을 거쳐 제101대 총리로 연임하고, 그러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파우치 “치료제 나와도 코로나 백신 접종 필수”

코로나19에 대한 먹는 치료제 희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 약이 승인되더라도 백신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3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치료제가 승인되면 백신이 불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아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미 제약사 머크앤컴퍼니(MSD)는 지난 1일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경증 또는 중간 증세의 감염 5일 이내 코로나19 환자 775명을 상대로 한 3차 임상시험에서 입원 가능성을 50%가량 낮췄다며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파우치 소장은 “잊지 말라. 병원에 가지 않고 죽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가 약을 가지고 있으나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사망자가 백신을 맞았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백신 미접종자가 압도적”이라고 언급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1일 MSD의 치료제 시험 결과 소식에 전해지자 식품의약국(FDA)이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승인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헝다그룹 홍콩 증시 거래 정지 계열사 지분 매각설

파산설에 휩싸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 그룹 주식이 4일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과 헝다의 부동산 관리사업 부문인 헝다물업(物業) 주식의 홍콩 증시 거래가 잠정 중단됐으며, 이유는 아직 공식되지 않은 상태다.

경제매체 차이렌서(財新網)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른 부동산업체인 허성황잔(合生創展)이 헝다물업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래금액은 400억 홍콩달러(약 6조원)를 넘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홍콩에 상장된 허성황잔 주식 역시 이날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헝다의 부채가 3000억 달러(약 356조원)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헝다 주가는 올해 들어 80%가량 하락한 상태다. 또 헝다의 채권 가지는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비해야 할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로, 헝다는 현금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헝다가 이미 지난달 23일과 29일 지급 예정됐던 달러 채권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한 가운데 이날 또 다른 채권의 실질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홍콩 항셱 지수는 2% 넘게 하락한 상태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8평)
DAP-0420AWJG

5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